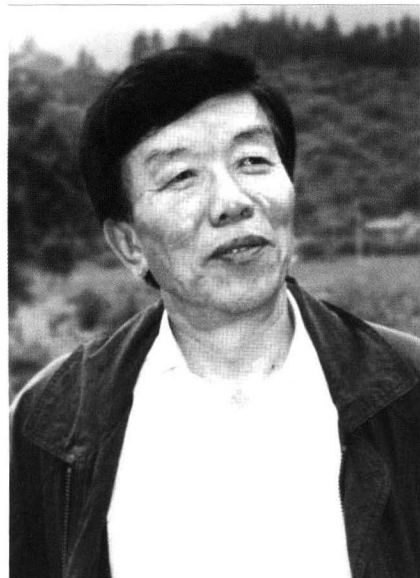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우리 신화의 참의미



《애들아, 한국신화 찾아가자》 김화경 지음 | 사석원 그림 | 오후세서복스 | 232쪽 | 값 8,500원



“우리 신화도 서양신화만큼 재미있습니다. 고주몽의 고구려 건국신화는 대립과 갈등이 점점 커지는 점층적인 구성이고, 무당신의 내력을 담은 무속신화들도 여러 삽화가 모여 하나의 신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이라고 해서 도외시하거나 단순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교훈과 재미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신화전문가 김화경(56·영남대학교 교수) 씨는 그리스·로마 신화서가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우리 신화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신화가 없는 민족인가 봐”라는 인식을 줄까 걱정되기도 했다. 이 참에 아이들에게 신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전해야겠다는 욕심을 내보기로 했다. 그가 초등학교용 한국신화서 《애들아, 한국신화 찾아가자》를 쓴 이유는 여기 있었다. 그는 우리 신화를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신화를 쉽게 풀어 썼다. 김

교수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인간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신화를 풀어나갔다.

“요즘 아이들은 무엇이든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는 창의력을 키우면서 고쳐나갈 수 있죠. 신화내용을 소개한 후 <생각해 봅시다> 코너를 마련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화를 아이들 스스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신화 속에는 꿈과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비합리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찾고 그 재미에 빠져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김화경 씨는 이 책이 교훈을 전하고 각 민족 특유의 세계관을 찾는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고수하던 전통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신화가 생활을 규제하는 일종의 규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화의 특성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건데 이는 <농사와 가축을 돌보는 신이 생기다>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문도령, 자청비 신화는 서양의 프로메테우스 형의 신화를 원형으로 한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곡식을 훔쳐오는 이야기로 되어 있던 서양신화가 한국에 와서 씨앗을 얻어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도적질을 싫어하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성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애들아, 한국신화 찾아가자》의 구전 신

화에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다. 김화경 씨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단어에 친절하게 주석식 설명을 달았다.

“신화학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합니다. 신화가 일반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독자 위주의 연구를 해야죠. 이번에 책에 실은 것 이외에도 많은 구전 신화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하고 중국과 일본의 신화들도 함께 써보고 싶습니다.”

그는 일본학자들의 왜곡된 한국신화 연구로 인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 신화 연구들을 검토해 바로잡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진짜 뿌리를 찾는 노력이며 곧 ‘나’를 돌아보는 노력이다. 신화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쉽게 풀어주고 익살스러운 그림도 담은 《애들아, 한국신화 찾아가자》는 ‘2003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한글**

취재 김청연 기자